

95. 7. 13

한국 국가청렴도 27위

홍콩·대만에도 훨씬 뒤져...1위는 뉴질랜드

독일 '디벨트' 보도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정도를 가늠하는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한국이 서유럽 각국은 물론 홍콩·말레이시아·대만 등에도 훨씬 뒤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독일의 유력지 <디 벨트>는 11일 베를린의 부정부패 추방운동기구인 '국제청렴기구'가 작성한 '투명도' 순위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공무원·정치가·기업가들의 뇌물수수, 불법 특혜 제공, 가격담합 등 부정부패의 확산 정도를 기준으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4.29점을 기록해 조사 대상 41개국 중 중하위권인 27위를 차지했다.

부패 정도는 특히 아시아권에 서 심각해 인도네시아가 1.94점(4

1위)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중국이 2.16점(40위)으로 그 다음이었다. 아시아권 중 파키스탄(2.25점, 39위), 필리핀(2.77점, 36위), 타이(2.79점, 34위) 등은 하위 그룹을 형성한 반면 싱가포르(9.26점(3위)으로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다.

홍콩은 7.12점(17위), 일본은 6.72점(20위), 말레이시아는 5.28점(23위), 대만은 5.08점(25위)을 기록해 한국보다 점수가 높았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나라는 9.55점을 기록한 뉴질랜드였으며, 이어 덴마크(9.32점)가 2위를 차지했다.

이 신문은 최근 들어 부정부패가 저개발국 등에서만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 브뤼셀·독일 등지에서도 흔히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를린/연합